주가	환율	금리
+8.25	-3.90	+0.01
1,387.44 (코스피지수)	938.50원 (원/달러)	4.73%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00.69	(+0.63)
다우(6일)	12,105.55	(+119.51)
나스닥(6일)	2,365.95	(+35.16)
닛케이	16,393.41	(+28.65)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77엔	(-0.61)
유로 달러 환율	1.2769달러	(+0.39)
3년만기 회사채	5.04%	(+0.10)
콜금리	4.40%	(-0.04)

대주건설(주)과 (주)혜주주택건설은 '남구 주거 명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광주시 남구 진월동과 월산동에서 '리더스 하이' 아파트를 410세대 공급한다. 사진은 진월동 '리더스 하이'의 조감도.

'리더스 하이' 410세대 분양

대주건설·혜주주택 남구 진월·월산동에

대주건설(주)과 (주)혜주주택건설은 광주시 남구 진월동과 월산동에 '리더스 하이'아파트 410세대를 분양한다.

'리더스 하이'는 지하 2층, 지상 10~15층 규모로, '남구 주거 명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월동 49·56평형(129세대), 월산동 35·43·46·66평형(281세대) 등 중대형 평형의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리더스 하이'는 차별화된 단지설계와 평면, 마감재 선택 등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주거 평면에서 벗어난 '주거 명작'을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단지내 주차·소음·수납·보안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방침이다.

진월동 공급물량은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인근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 제석산 등산로와 광목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거실에서 금당산을 바라볼 수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과 조망권을 두루 갖췄다.

인근에 인성고, 광주과학고, 대성고, 대광고, 광주일고 등 우수학군이 밀집돼 있으며, 제2순환도로와 효덕IC, 용산IC, 서광주 IC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모델하우스는 서구 농성동 농성역 광장 인근으로 11월중 개관한다. 문의 062-364-250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지역 업무·상업용 빌딩 임대료·공실률 살펴보니

"좀 비싸도 큰 건물로" 소형빌딩 수익 격감

전남도청 이전 수요 위축속 규모·지역별 양극화 심화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광주지역 업무용 및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와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상당수 세입자들이 수익악화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서구 치평동을 비롯한 일부 인기지역의 경우 대형 빌딩의 임대료 상승폭이 큰 데다 건물의 크기에 따라 임대료나 공실률 격차가 커지는 등 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샘스에 따르면 3·4분기 광주 업무용 빌딩의 환산임대료(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임대료)는 평당 3만7천34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4분기 평당 임대료 3만6천772원보다 1.6%(574원) 높은 것으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서구 치평동을 비롯한 일부 인기지역 대형빌딩의 임대료가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3·4분기 광주 소형 빌딩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3만3천168원, 1만5천306원으로 전분기인 2·4분기와 보합세를 이뤘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 대형빌딩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3만8천783원, 1만9천19원으로 전분기인 2·4분기보다 각각 0.7%, 1.5% 상승하면서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건물 규모에 따른 양극화는 빌딩 공실률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3·4분기 광주의 중·대형과 대형빌딩의 공실률은 각각 4%, 1%로 낮게 나타난 반면 소형 빌딩의 공실률은 31%에 달하는 등 '빈 점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불황으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세입자들이 서구와 남구 등 일부 인기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 보증금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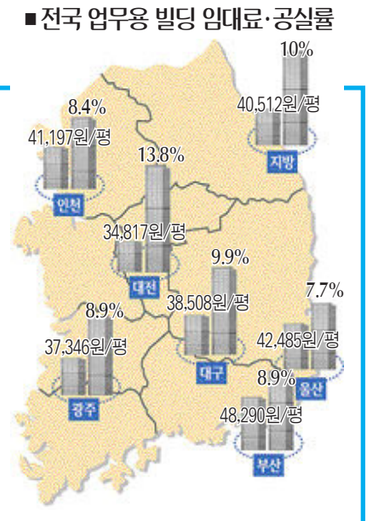
특히 동구의 경우 충장로를 비롯한 일부 상권을 제외하고는 1층 상가라도 꾸준히 세가 나가는 건물은 운이 좋은 편에 속할 만큼 입주자의 발걸음이 끊겨 건물주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빌딩 소유주들의 어려움은 최근 건교부의 투자수익률 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 7월1일 현재 광주의 업무용과 상업용 빌딩의 투자수익률은 각각 0.48%, 3.48%로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투자수익률은 임대료 등 소득수익률과 가격 상승 등 자본수익률을 합한 것으로 광주가 전남도청 이전 등으로 인한 오피스 및 상권 수요 위축 정도가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서울은 상업용과 업무용의 투자수익률이 각각 9.65%, 10.92%에 달하는 등 수도권과 지역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국 업무용 빌딩 임대료·공실률



빼빼로데이 마케팅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연인 등 지인들에게 빼빼로를 넣은 꽃바구니를 전국으로 배송해주기로 하고 예약 서비스 접수를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점점 커지는 소득差…2003년이후 최대

3분기 7.8배…월평균 소득 305만원

지난 3·4분기 돈을 많이 버는 가구와 적게 버는 가구의 소득 격차가 지난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또 전국가구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실질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소비는 정체상태에 빠져들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3·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6천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294만8천700원에 비해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소득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분기의 2.1% 이후 최저치다. 또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3·4분기 월평균 소득은 342만3천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331만900원에 비해 3.4% 늘어나는 데 머물러 소득증가율이 작년 동기의 3.0%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무직자 등을 포함한 전국가구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7.79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8에 비해 더 커졌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이다. 하지만 도시근로자 가구의 5분위 소득배율은 5.29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5.34보다 낮아 소득격차가 줄었다.

전국 가구의 3·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06만3천6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증가율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시근로자가구의 3·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도 216만600원으로 0.4% 증가해 2002년 4·4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리 대학출신 채용해주세요"

전남대 등 지역대학 잇단 취업 지원행사

졸업생 취업률이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으면서 전남대, 순천대 등 지방대에서 취업지원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채용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전남대는 광주광역시 등과 공동으로 8~9일 한국IMC, 앰코코리아 등 112개 기업이 참여하는 잡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참여업체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총 63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목포대도 전남도와 노동부 목포지청과 함께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목포대에서 '2006년도 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창업부문에서는 도내 11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32개 기업체가 참가해 신기술관, 전남전략산업관, 로봇전시관, 창업상담관 등을 운영하게 된다. 또, 취업부문에서는 보해양조(주) 등 50여개 중견기업체에서 면접 및 채용을 실시하게 되고, 취업지원관 및 인력개발관 등도 운영된다.

순천대는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과 공동으로 8-9일 전남 동부권 취업박림회를 개최한다.

이 지역 우수기업의 인재유치를 돕기 위해 기획된 이번 박람회에는 GM대우, DPI, 현대계전 등 50여개 업체가 참가해 230여명의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KAL, 종이항공권 발권에 수수료 3만원

내년부터 징수

대한항공은 내년부터 종이항공권에 대해 3만원의 발권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부터 e-티켓 발행이 가능한 구간에 한해 종이티켓을 발권하는 경우 1장당 3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종이항공권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노스웨스트항공과 싱가포르항공 등 외국 항공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07년말까지 종이항공권을 완전 폐지하고 e-티켓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